



4대강 자전거길 종주하고 인증서 받으세요 영산강 등 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에서도 제주 올레길처럼 '종주 인증제'가 시행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4월 말 영산강 자전거길 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20일 홍보대사인 산악인 김흥민 씨와 자전거호호회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담양에서 목포까지 133km구간 시범 종주 라이딩을 했다. 영산강에서는 담양 메타세콰이아길 대표소와 승촌보·죽산보 문화관, 목포 하구둑 황포돛배 대표소 등 4곳에서 종주 인증을 해준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당 독점 깨지는 부산... 광주는?

“20년 독주 폐해 심각” 민심 변화 부산 ‘문·성·길’ 광주 이정현 주목

4·11 총선에서 호남과 영남의 일당 독식구조가 깨질지 주목된다. 19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호남과 영남 민심에선 ‘호남=민주당, 영남=새누리당’이라는 지역 정치지형을 바뀌어야 한다는 변화의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일당 독식구조가 그동안 지역정치는 물론,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폐해가 심각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텃밭에 뛰어든 이정현(광주 서구 을) 새누리당 의원, 김선동(순천·곡성) 통합진보당 의원과 새누리당 텃밭인 부산 지역구에 뛰어든 민주당 후보들이 어떤 결과를 얻을지 관심이 있다.

◇지역민심 변화의 바람=민주당과 새누리당 일색이던 호남과 PK(부산·경남)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는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민심이 상당수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공천 개혁으로 내놓은 ‘국민참여경선’이 ‘현역 의원 전 원 승리’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 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고, 경선 과정에서 관권·조직 동원 등 온갖 불법·탈법 진흥당 싸움으로 번진데다 급기야 투신자살 사태까지 불려오면서 반(反) 민주당 정서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 1990년대 3당 합당으로 비롯된 일당 독식 구조가 심각한 부산에서도 20대~40대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부산지역의 심각한 경기침체가 민심을 뒤흔들고, 광주처럼 새누리당의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노동(노무현 바람)’도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부산의 일당 독점구조가 깨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전망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일당 독점의 정치구조 아래에서는 중앙당의 권력이나 이를 놓고 경쟁하는 정치집단이 지역 민심을 살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면서 “지역민심을 무시 해도 선거에서 이기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지역민심의 요구는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일당 독점에 대한 폐해를 지적했다.

◇일당 독식 깨질까? =광주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광주 서구 을) 의원이, 전남에서는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곡성) 의원이 ‘일당 독식’을 깨기 위해 나섰다.

이 의원은 호남 유일의 야권연대 후보인 통합진보당 오병운 후보와 한 관 대결을 벌여야 한다. 이 의원은 ‘호남 예산 지킴이’라는 점을 내세워 유권자를 상대로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의원은 “장기간 일당 독점, 일당 독주는 호남의 자존심도 민주화 모습도 아니다”며 “호남에 정치경쟁 도입은 필연이고 시대적 과제이자 요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당 독점에 대해 모두 후보를 확정하고, ‘문성길(문재인·문성근·김정길) 트리오’ 등 호화진영을 내세워 ‘바꿔보자’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부산에서 민주당 유일의 재선의원인 조영준(진구 갑)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항숙 전 국회의원(금정) 등도 인지도와 경쟁력을 앞세워 선전을 펼치고 있다.

부산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1990년대 3당 합당에서 비롯된 일당 독식 구조가 20여 년을 이어오면서 지역 정치 경쟁력을 상실해 하고 이는 고스란히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이 때문에 반 새누리당 정서도 팽배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많으면 5석 이상을, 적으면 최소 3~4석 정도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태일 여동생’ 전순옥 1번... 한명숙 15번

민주 비례대표 40명...전남 출신 백군기 8·김광진 10·신문식 22번

민주당은 20일 고(故)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인 전순옥 참여노동복지센터 대표를 비례대표 후보 1번에 공천했다. 한명숙 대표는 15번에 배정됐다. <관련기사 3면>

광주·전남지역 인사로는 장성 출신 백군기 전 3군사령관(8번)과 여수 출신 김광진 청년비례대표 후보(10번), 고흥 출신인 신문식 민주당 조직부총장(22번) 등 3명이 포함됐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밤 당무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2번에는 최동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3번은 80년대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은수미(여)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4번은 홍종학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5번은 진선미 이안법률사무소 공동대표변호사가 각각 공천됐다.

또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 시인으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도종환 씨는 16번, ‘통일의 꽃’ 입수경 씨는 21번에 각각 배정됐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 출신으로 혁신과 통합을 이끈다 민주당에 입당한 남윤인선 당 최고위원은 9번에, 김기식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4번에, 최민희 국민의명령 대외협력위원장은 19번에 각각 공천됐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 거론됐던 박기영 순천대 교수, 박주현 변호사, 이석형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정대화 교수 등은 공천에서 탈락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53) 통일교육원장은 4번을, 영화 감독이 출연자이자 필리핀 귀화여성 이자스민(35)씨는 17번을 받았다. 광주·전남 출신 중에는 목포상공회의소 주영순(65) 회장이 당선 안정권인 6번에 배정됐다.

당 내에선 20번~22번까지 당선 안정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선 22명이 당선 안정권에 들었다. /이종형기자 golee@

민병주 1·박근혜 11...주영순 목포상의회장 6번

새누리 비례대표 46명

새누리당이 20일 한국원자력연구원 민병주(여·53) 연구위원을 비례대표 1번에 배정하는 등 46명의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1번을 받았다. <관련기사 3면>

정홍원 공천심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하면

서 “박 위원장이 당에 기여할 인사를 우선 배치해달라는 뜻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 23명·여성 23명 등이다. 1번에 배정된 민 연구위원은 여성이자 이공계열 출신이다. 이어 한 국지체장애연합회 김정록(61) 중앙회장이 2번, (사)한국농수산식품 CEO연합회 윤명희(여·55) 부회장이 3번에 배정됐다.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53) 통일교육원장은 4번을, 영화 감독이 출연자이자 필리핀 귀화여성 이자스민(35)씨는 17번을 받았다. 광주·전남 출신 중에는 목포상공회의소 주영순(65) 회장이 당선 안정권인 6번에 배정됐다.

당 내에선 20번~22번까지 당선 안정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8대 총선에선 22명이 당선 안정권에 들었다. /이종형기자 golee@

선거에 쓸 1억 전액 기부한 후보

장흥 김명전씨 총선 출마 포기후 장학금으로 기탁

4·11총선 장흥·강진·영암지역 민주당 예비후보로 활동하다가 경선 전 컷오프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던 김명전 전 EBS교육방송 부사장이 불출마 결단을 내리면서 선거자금 1억원을 지역인재육성기금으로 출연키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전 부사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소속 후보로 나서는 대신 민주당·진보세력의 승리를 위해 보태기로 했다”며 “그동안 보내준 지역민의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는 뜻으로 이번 총선을 위해 모아둔 1억원의 선거비용을 ‘장흥군 인재육성위원회’에 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결단이 우리 지역 내 모든 민주당·진보세력을 결집시켜 부패세력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민주와 정의, 지역민의 승리를 쟁취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국회의원의 뜻을 접지만 언제 어디서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흥 출신인 김 전 부사장은 지난 14일 컷오프 탈락에 반발, “‘밀실 공천’, ‘고무줄 공천’, ‘계파 공천’ 등 온갖 의혹과 오명 속에 막을 내린 민주당의 후보공천을 둘러싼 지역민들의 절망과 분노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뒤 무소속 및 통합진보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김 전 부사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향후 행보와 관련, “지역사회가 토호세력의 부패에 굴복이 들고 있다”며 “정치를 개혁하고 지역의 부패 고리를 끊어내는 후보가 있다면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결단이 우리 지역 내 모든 민주당·진보세력을 결집시켜 부패세력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민주와 정의, 지역민의 승리를 쟁취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국회의원의 뜻을 접지만 언제 어디서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흥 출신인 김 전 부사장은 지난 14일 컷오프 탈락에 반발, “‘밀실 공천’, ‘고무줄 공천’, ‘계파 공천’ 등 온갖 의혹과 오명 속에 막을 내린 민주당의 후보공천을 둘러싼 지역민들의 절망과 분노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뒤 무소속 및 통합진보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김 전 부사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향후 행보와 관련, “지역사회가 토호세력의 부패에 굴복이 들고 있다”며 “정치를 개혁하고 지역의 부패 고리를 끊어내는 후보가 있다면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첨단2지구 제일풍경채 리버파크
www.jeilriverpark.co.kr

토지 청약경쟁률 187:1

SINCE 1978
제일건설(주)

광주 프리미엄의 기준을 바꾸다
첨단2지구 제일풍경채 리버파크

첨단 2지구 중소형 마지막 프리미엄 최고의 영산강 조망권!

쾌적한 수변공원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영산강, 그 탁트인 전망이 선사하는 프리미엄을 누리십시오

첨단2지구를 대표하는 영산강 조망 프리미엄!

- ▶ 교통특권 | 빛고개로 연결(예정)과 동림C, 북광주C가 인접한 사통팔달 교통환경
- ▶ 교육특권 | 단지 바로 앞 신용초교를 비롯해 지구내 중·고교 모두 도보 통학권
- ▶ 비전특권 | 광주를 대표하는 첨단산업의 메카, 첨단 R&D 특구의 높은 미래가치
- ▶ 조망특권 | 영산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뛰어난 조망과 수변공원의 쾌적한 주거환경

문의 **1577-1810**

SINCE 1978 - 제일건설(주)

67(227) ~ 84(233) 총 613세대
|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26-5 |

3월 23일
OPEN

*본 홍보물에 사용된 지역도, 단지시설 등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표기된 타입별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는 절삭되었습니다.

*본 홍보물에 기재된 분양가격은 인허가 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홍보물에 기재된 사업내용 등의 내용은 인·허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2지구 ·대지면적: 31,369.00㎡ ·연면적: 86,496.0667㎡

·건축면적: 5,735.5035㎡ ·용적률: 199.81% ·건폐율: 18.28%

·규모: 9개동 15~25층 613세대 ·용도: 공동주택(에어컨 및 부대시설)